

하고 있다.

주요 사업으로는 국내 기 설치된 터빈 부품의 보수기술개발, 독자개발 터빈부품의 보수 공정기술개발과 같은 기술개발사업과 구축된 Pilot Plant 및 기술의 국내 기업 이전사업 그리고 해외 발전 Plant수출과 연계한 보수물량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 등이다. 동 사업은 앞으로 한국기계연구원의 AFRA사업의 항공기 부품 제조 기술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수명진단 및 보수기술 등 항공기 부품소재의 수명관리 Full Cycle개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.

[문의:0551)280-3400]

**단조·소성가공분야의 CAE 심포지움 개최**

단조 및 소성가공 분야에 필요한 설계 기술의 교류를 위해 CAE 활용에 대한 사례 및 기술 현황에 대한 심포지움이 1999년 2월 10일부터 2일간에 걸쳐 개최되었다. 최근 제조산업은 복잡해지는 제품성능과 제조공정을 만족시키기 위한 기술혁신 및 비용절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, 현장 경험에만 의존한 설계는 한계에 이르고 있으며, 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해석 기술(CAE:Computer-Aided

Engineering)을 이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기업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.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시점인 만큼 동 심포지움은 약 50개의 관련업체에서 9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적, 경제적 효과에 대한 많은 사례들이 발표되고 심도있는 토론의 장이 이루어졌다. 동 심포지움은 작년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었으며, 매년 CAE 심포지움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다.

[문의 : 0551)280-3522]

**대신금속, 독일 주조전문가 초청지원**

AFRA에서는 항공우주 부품·소재 관련 업체의 애로기술 해결과 기술혁신 능력 향상을 위해 국·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기술지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. AFRA 산업체 회원사 중의 하나인 창원소재 대신금속(대표:박수현)에서는 해외 수출용 또는 국내

납품용으로 개발 중인 고난도의 다양한 Al 및 Mg 주조품의 주조방안 설계를 효과적으로 기술지도할 수 있는 전문가 초청을 의뢰하였다. 이에 한국기계연구원의 AFRA에서는 독일의 SES(Senior Experten Service: 현업에서 은퇴한 기술자를 제3세계에 소개해주는 단체)와 접촉하여 SES소속의 Mr. J. Goschin이라는 주조방안설계 전문가를 소개하였으며 현재 Mr. J. Goschin은 1999년 2월 22일부터 3월 20일까지 약 1개월의 일정으로 대신금속에서 기술지도를 수행하였다.

Mr. J. Goschin의 기술지도아래 대신금속에서는 단기간에 난이도가 매우 높은 독일 MTU 수출용 Al 주조품, 터보 컴프레서용 박육 복잡형상 Mg주조품 등 약 6개의 다양한 주조품을 개발할 수 있었다. 대신금속에서는 AFRA 기술지도를 계기로 AFRA 전문가의 지속적인 활용을 기대하고 있다.

**애로기술해결을 위한 전문가 초청지도사업 안내**

- 항공우주 부품·소재 공동연구단지(AFRA)에서는 산업체의 애로기술해결과 기술혁신능력 향상을 위해 국내·외 전문가 기술지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많은 이용바랍니다
- 현장체류 기술지도(1개 업체) : 항공료/자문료(50%지원) + 숙박/일비(업체부담)
- 업체순회 기술지도(2개 업체이상) : 항공료/자문료(100%지원) + 숙박/일비(업체부담)
- 문 의 : 0551-280-3880/3401/3782
- 인터넷 : <http://afra.kimm.re.kr>